한국어 지시어 '이', '그', '저'가 결합한 시간 표현 부사의 통시적 연구*

주 지 연**

I. 서론

본 논의의 목적은 지시어가 결합된 시간 부사류의 의미 및 용법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시간지시 체계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제, 그제, 저제', '이때, 그때, 저때'의 의미는 일반적인 지시어의 의미에 기대어 설명되어 온 경향이 있었으며, 그 지시 대상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행해지지 않은 면이 있다. 『우리말큰사전』의 '옛말과 이두' 편, 『고어사전』(남광우 저) 등 중세국어를 다룬 사전이나 『17세기 국어사전』(홍윤표 저) 등에서는 '이제, 그제, 저제'의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어형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현대국어의 '이제, 그제, 저제'로 치환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제, 저제'를 세밀히 관찰하면 이들이 시대에 따라 지시적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장지시, 문맥지시, 개념지시 등 지시어 '이, 그, 저'가 가지는 다원적 지시 기능 및 '이때, 그때, 저때'가 지시하는 대상의 의미영역과 함께 연결시켜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어 '이, 그, 저'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그제, 저제'와 함께 '이쁘, 그쁘, 저쁘', '이때, 그때, 저때' 류를

---

*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현희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 남아 있는 문제점은 오롯이 필자의 불찰로 인한 것임을 밝혀둔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의 의미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II장에서는 현대국어의 지시어의 일반적인 기능 체계와 구별되는 시간 지시 체계를 정립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III장에서는 현대국어의 '이제, 그제, 이때, 그때, 접때'에 소급되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어형들의 의미의 변화를 살펴본 뒤 IV장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II. 지시어의 기능과 시간 지시

1. 지시어의 기능과 층위

한국어에서 지시어 연구는 일찍이 최현배(1959)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최현배(1959: 222-223)에서는 '이, 그, 저'를 근칭, 중칭, 원칭으로 구분하는 거리 중심적 지시어 체계를 세운 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하여 '거리'는 화자의 심리에 의한 '주관적 거리'임이 지적되기도 하고, 화자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 체계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를 모두 기준으로 삼은 인칭 중심 체계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에 김일웅(1982)에서는 '이, 그, 저'는 말할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공간적 거리감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며, 말할이에게 가깝게 느껴지면 '이'로 들을이에게 가깝다고 느껴지면 '그'로 그리고 둘 다에서 떨어져 있다고 느끼면 '저'로 지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시어의 사용 양상은 그 층위가 다양하고 범위가 방대하며 다른 표현과 합쳐져 사용되는 양상에 따라 그 성격에 차이가 생기는 등의 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시어의 사용 영역과 층위를 나누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승후(1993)에서는 '이, 그, 저'의 시간 지시 기능은 사물을 지시하는 기능과는 달리 '이'가 화자 근칭이며, '그'는 청자 근칭, '저'는 화자와 청자의 원칭이라는 규정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시간 지시 기능에서 '이'는 화자가 잘 알고 있거나 화자가 지시하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며 '그'는 화자나 청자가 모두 알고 있거나 짐작하고 있는 전술 언급된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저'는 과거 시간 지시에 주된 기능이 있으나 미래 시간

지시에서는 '이'와 '그'로 지시된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김일웅(198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의 사용 층위를 나누었다.[1)]

(1) 지시 [상황지시 -------- [현장지시 / 개념지시]]
[문맥지시 -------- 조응지시]

(2) ㄱ. 현장지시: 말할 이와 들을 이가 함께 현장에서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을 지시
ㄴ. 개념지시: 지시되는 대상이 의식속의 사실일 경우의 지시
ㄷ. 조응지시: 선행어와 되풀이된 조응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시

다음은 김일웅(1982)에서 제시한 각 층위 별 지시어의 기능이다.

(3)

지시의 종류		구분 기준	지시의 기능
상황 지시	현장 지시	들을이와의 관계에 따른 영역(세력권)	이: 지시 대상이 말할이의 영역에 속함 그: 들을이의 영역에 속함 저: 둘 다의 영역에 속하지 않음
	개념 지시	말할 이의 주관적 거리감 들을이의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한 말할이의 판단	이: 들을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깝게 판단한 것 그: 들을 이도 알고 있다고 봄 저: 들을이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봄
문맥 지시	조응 지시	들을이에 대한 고려 없음 말할이의 주관적 거리감	이: 지시 대상에 대하여 가깝게 느낌 그: 지시대상에 대하여 거리가 있게 느낌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 복합 표현인 '이제, 그제, 저제', '이 때, 그 때, 저 때'와 같은 표현들은 이러한 틀로 정확히 설명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의 경우에는 어휘화의 과정을 겪기도 하면서 지시의 범위가 변화하

1) 지시와 관련된 분류는 김일웅(1982) 외에도 장석진(1984), 장경희(1991), 신지연(1998) 등에서 행해진 바 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한 분류에 대하여 용어상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김일웅(1982)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용어의 비교 정리는 신지연(1998: 668-669) 참조.

는 등의 특수한 모습을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제'의 경우 등을 특수하게 어휘화한 예로 다루고 어휘 의미적으로만 설명하였고, 지시어의 체계 속에서 시간 지시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방식의 설명은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시어의 기능을 중심으로 시간 지시어 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지시어의 시간 지시 체계

지시어의 시간 지시 체계는 지시어의 다른 기능들이 보이는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본 논의에서는 지시어의 시간 지시 표현들이 보이는 특성들이 부분적인 표현상의 특징으로 특수하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시어의 시간 지시 체계를 따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시어의 시간 지시 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시간지시의 경우, 현장지시에 '그'가 필요하지 않다. 현장에서 가리킬 수 있는 시간에 화자보다는 청자에게 가까운 시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계열의 시간 지시 표현은 현장에서 화자가 겪는 시간을, '저' 계열의 시간 지시 표현은 화자가 겪고 있지 않은 시간을 표현하는 반면, '그' 계열의 지시 표현은 시간을 가리킬 때 현장 지시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4) ㄱ. "지금 이 때를 놓치지 말자"
ㄴ. (아이들을 보며) "저 때가 좋을 때지"

둘째, 시간을 가리키는 개념지시 표현에는 '이', '저' 계열이 사용될 수 없고 '그' 계열만이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표현이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알고 있는 한 시점에 대한 내용이며, 앞에 다른 문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 때 '저 때'와 '이 때'가 사용되면 어색해진다. 이를 어색하지 않게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현장지시이거나, 문맥지시 상황이 되어야 한다.

(5) ㄱ. 그 때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재떨이를 가져다 버리셨어요
ㄴ. *[2]저 때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재떨이를 가져다 버리셨어요[3]
ㄷ. *이 때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재떨이를 가져다 버리셨어요

셋째, 어휘화되면서 의미가 변한 것과 그렇지 않은 어형은 따로 다룰 필요가 있다. 가장 의미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그제'이다. '그제'는 더 이상 '그'가 지니는 지시어적 특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독자적인 개념을 가진 어휘로 어휘화되었다. '접때'는 개념지시표현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 계열의 '입때'와 '이제'는 각각 음운론적으로 형태 경계가 흐려지고, '-제'가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을 잃음으로 인하여 어휘화 과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의미가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고, 발화시점에 기대어서만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어휘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와 '입때'는 개념지시로 사용될 수 없다.

넷째, 문맥지시에서는 '이, 그' 계열만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i) '이' 계열은 '그' 계열에 비해 더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거나, 내용을 현재화하여 드러낼 때 사용된다.

(6) ㄱ. 영희는 황급히 문을 닫고 뛰어나갔다. 이 때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ㄴ. 영희는 황급히 문을 닫고 뛰어나갔다. 그 때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위의 예문에서도 (ㄱ)이 더 현재형의 실감나는 전달이라는 느낌을 준다.

---

2) 문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념지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 때 '저 때'가 아니라 '접때'는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어휘화된 예로 따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바로 아래 단락에서 다룬다.

ii) 문맥 내에서 '이 때'는 앞 문맥 중 비교적 좀 더 가까운 지점을, '그 때'는 앞 문맥 중 비교적 좀 더 먼 지점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위의 분석에 의하면 지시어의 시간 지시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7)

시간 지시의 종류		구분 기준	지시의 기능
상황 지시	현장 지시	화자가 겪고 있는 시간인지 여부	이 때: 화자가 겪고 있는 시간 저 때: 화자가 겪고 있지 않은 시간 이제: 화자가 겪고 있는 시간 흐름 속에서 발화하는 그 시점 이후부터
	개념 지시	화자가 청자와 공유한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청자가 짐작 가능하다고 여기는 시점의 정보	그때: 화자가 청자도 알고 있을 것으로 여기는 시점. 접때: 화자가 청자도 짐작 가능하다고 여기는 시점
문맥 지시	조응 지시	i) 문맥 흐름의 긴박성 또는 현재화 여부 ii) 문맥 내의 거리	이 때: 더 현장성 있는 표현. 혹은 문맥 내에서 더 가까이에 있는 사건의 시점. 그 때: '이 때'에 비해 현장성이 덜함. 문맥 내에서 '이 때'에 비해 먼 곳에 위치한 사건의 시점

그 의미가 바뀐 '그제'와 '접때'의 예를 제외하고 보면 한국어 시간 지시를 위해서는 현장지시에는 '이, 저' 계열이 개념지시에는 '그' 계열이, 문맥지시에는 '이, 그' 계열을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III. '이제, 그제, 저제/이때, 그때, 접때'의 통시적 변화

'이제, 그제, 저제/이때, 그때, 접때'는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를 거쳐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의미, 형태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휘화되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현대국어의 시간 지시 체계에 빈칸을 만들지 않고 지시 표현에 필요한 요소를 어휘화하여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는

언어 사용자의 지향과 연관된다. 현대국어의 '이제, 그제, 이때, 그때, 접때'에 소급되는 중세, 근대국어의 어형들 역시 현대국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장지시, 개념지시, 문맥지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 시대별 목록 확인

지시어 '이, 그, 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시간 부사(명사)들을 시대 순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8) 중세국어
그저긔, 그적긔, 그적의, 그젓긔, 그적, 그삐, 그씌, 그제, 뎌삐, 이적, 이삐, 이제, 이졔, 이때, 그때, 이때, 그때

(9) 근대국어
그씌, 급씌, 그저긔, 그적의, 그적, 긋그럿긔, 긋그적씌, 긋그 긔, 긋그제, 그때, 뎌삐, 뎌적, 뎌제, 이삐, 이적, 이 , 이제, 이졔, 이때, 그때, 이때, 뎌때

(10) 현대국어
이제, 그제, 그때, 이때, 저때, 접때

위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그제'에 소급되는 어형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이 모두 문헌자료이기 때문에 현장지시보다는 개념지시나 문맥지시 표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시간지시 기능의 통시적 변화

1) '이' 계열

중세국어에서 '이제'에 소급되는 어형은 '이적', '이제', '이졔'이며 현대국어에서 현장지시와 문맥지시에 사용되는 '이때' 대신 '이삐'가 사용되었던

것 같다. 뒤에 '의'가 붙은 형태가 많이 출현하는 '그저긔' 류와는 달리 '이' 계열의 경우에는 '이제'라는 어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15세기 '이제'의 몇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ㄱ. 王이 좌시고 病이 됴ᄒᆞ샤 이 말 드르시고 놀라 臣下ᄃᆞ려 무르샤ᄃᆡ 太子ㅣ 이제어듸 잇ᄂᆞ뇨 大臣이 술보ᄃᆡ 太子ㅅ 모미 傷ᄒᆞ야 〈석보상절 11: 21a〉

ㄴ. 내 大衆과 ᄒᆞᆫ 가지로 누늘 가져 보ᅀᆞᆸ노이다 부톄 阿難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네 이제 날 對答호ᄃᆡ 如來ㅣ ᄉᆞᆫ가락 구펴 光明ᄒᆞᆫ 주머귀 ᄆᆡᆼᄀᆞ라 네 心目ᄋᆞᆯ 비취ᄂᆞ다 ᄒᆞᄂᆞ니 〈능엄경 1: 84a〉

ㄷ. 種種앳 過患이 다 無明에 가다 ᄒᆞ시고 이제 또 니ᄅᆞ샤ᄃᆡ 體 업다 ᄒᆞ시니 道理 보미 어려우며 〈원각경 1-2: 151a〉

ㄹ. 天下ᄅᆞᆯ 善히 다ᄉᆞ릴 사ᄅᆞᆷ은 賢才로 웃듬 삼ᄂᆞ니 이제 人才 하니 ᄀᆞ장 깃브도소이다 〈내훈 2: 110b〉

이 당시 '이제'는 한문에서 '今'을 번역하여 '지금'이라는 현장지시 기능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 '그 때에'라는 의미로 개념 지시 및 문맥 지시 기능을 가졌던 '그저긔, 그제' 등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세국어 뿐 아니라 근대, 현대국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제'형이 채우지 못한 문맥지시의 기능은 '이ᄡᆡ'형이 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12) ㄱ. 짜해 그우로ᄆᆞᆫ 여러 趣예 그우러 ᄠᅥ러듀ᄆᆞᆯ 가ᄎᆞᆯ비시니라 이ᄡᆡ 그 아비 지븨 도라오니 子息ᄃᆞᆯ히 毒藥 마셔 시혹 本心 일흐며 시혹 일티 아니ᄒᆞ더니 〈월인석보 17: 17a〉

ㄴ. 世尊하 가ᄎᆞᆯ비건댄 사ᄅᆞ미 親ᄒᆞᆫ 버듸 지븨 가 술 醉ᄒᆞ야 누엣거늘 이ᄡᆡ 親ᄒᆞᆫ 버디 그 윗일로 녀ᄅᆞᆯ 當ᄒᆞ야 값 업슨 寶珠로 옷소매 ᄆᆡ야 주고 니거ᄂᆞᆯ 〈법화경 4: 37b〉

ㄷ. 風塵ㅅ ᄀᆞᄉᆡᆨ 飄颻히 ᄃᆞᆫ니노니 어느 짜해 늘근 노ᄆᆞᆯ 두려뇨 이ᄡᆡ 疣贅 ᄀᆞᆫ호ᄆᆞᆯ 보노니 骨髓ㅣ 幸혀 ᄆᆞᄅᆞ디 아니ᄒᆞ얫노라 〈두시언해 6: 40b〉

그런데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ᄡᆡ'류가 맡고 있던 현장 지시 및

문맥지시 기능을 '이 때'와 나누어 맡게 되면서 '이삐'류와 '이때'류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이후 20세기 쯤에는 더 이상 '이삐'류가 사용되지 않고 '이때'가 '이'계열의 현장지시와 문맥지시 기능을 맡게 되었다.

종합하면 '이제'의 의미가 현대국어의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중세, 근대 국어에서도 '이제'류가 현장지시 기능만을 할 수 있고 '이 삐'류가 현장지시와 문맥지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가 현장지시 기능만을, '이 때'가 현장지시와 문맥 지시 기능을 하는 현대국어의 체계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 역할을 '이 삐'류와 '이때'류가 나누어서 하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이삐'는 사용되지 않고 '이 때'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2) '그' 계열

중세국어 시기의 '그제'의 기원형에 해당하는 어형과 그 어형들이 나타나는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13) 그저긔, 그적긔, 그적의, 그젓긔, 그적, 그제

(14) ㄱ. 아바니미 아들ᄃᆞ려 닐오ᄃᆡ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니믈 보숩고져 ᄒᆞ노니 ᄒᆞᆫ삐 가져라. <u>그저긔</u> 두 아ᄃᆞ리 空中으로셔 ᄂᆞ려 어마늠긔 가 合掌ᄒᆞ야 ᄉᆞᆯ보ᄃᆡ 〈석보상절 21: 38b〉

ㄴ. 곽도경의 네ᄃᆡᆺ 하나비 효도홈ᄆᆞ로 일홈나 ᄆᆞᅀᆞᆯᄒᆡ셔 효ᄌᆞ ᄉᆞ당을 ᄆᆡᆼᄀᆞ랏더니 <u>그적긔</u> 도ᄌᆞᆨ기 니러나 ᄇᆡᆨ셩이 다 ᄃᆞ라 숨거ᄂᆞᆯ 도경이 아ᄉᆞ 좌경이와 ᄉᆞ당ᄋᆞᆯ 디 오 잇다가 자피여 〈이륜행실도_옥산 23a〉

ㄷ. 홍티 갑ᄌᆞ애 연산군이 거즛ᄒᆡᆼ실이라 ᄒᆞ시고 죽이신대 아ᄃᆞᆯ 쥬신이 <u>그적의</u> 승문박ᄉᆡ러니 아비 죄업시 죽은줄을 셜이 너겨 가ᄉᆞᆷ 두들여 울고 음식을 아니먹고 죽으니 〈속삼강행실도_중간본 32b〉

ㄹ. 듕상이 어믜 거상 밧고 닐우ᄃᆡ 내 오공의 덕게 사라나니 이젠 어미 주그니 내 ᄠᆞᆯ다이 호리라 <u>그젓긔</u> 보안니 나가 죽고 겨집도 주거셔 시톄ᄅᆞᆯ 몯 가져 왓거ᄂᆞᆯ 〈이륜행실도_옥산 37a〉

ㅁ. 손조 목 ᄆᆡ야 주고ᄃᆡ 어려이 아니 너겨 ᄒᆞ더니 <u>그적</u> 나히 스믈닐굽이러라 〈삼강행실도_동경烈 23b〉

정동경(2005)에서는 이들은 모두 '그 때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현

대 국어의 '그제'가 가지는 이틀 전이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다. '그적긔'의 경우에는 '효도홈ᄆᆞ로 일훔나', '도즉기'와 같은 표현과 한 문장 안에서 나타나므로 '그적의'를 중철 표시 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국어에서 '그젓긔' 형은 반드시 '이틀전'이라는 '그저께'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세국어에 '그때'를 의미하는 '그적'만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첫째는 '그적+의〉그적긔〉그젓긔'의 과정을 겪어 근대국어 이후, '이틀 전'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4] 둘째는 '그적+의'와 '그적+씌'라는 별개의 어형이 존재하고, 전자는 '그 때', 후자는 '이틀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전자는 사라지고 후자만이 '그저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 후자의 가설을 지지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 이는 의미에 따른 형태 분포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다. 즉 근대국어에서 '이틀전'이라는 의미와 '그때에'라는 의미가 모두 나타나는데, 이를 나타나는 어형들인 '그저긔, 그적긔, 그적의, 그젓긔, 그 긔' 중 '그저긔, 그적의, 그적긔, 그 긔'는 '그 때에'라는 의미로, '그적긔, 그젓긔, 그 긔'는 '이틀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의미상 형태 분포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ㄱ. 근대국어에서 '그 때에'라는 의미로 사용: 그저긔, 그적의, 그적긔, 그 격긔, 그제
ㄴ. 근대국어에서 '이틀전'이라는 의미로 사용: 그젓긔, 그적긔, 그격긔

위의 어형들을 살펴 보면 '그 때에'라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그저긔, 그적의'이고 '이틀전'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어형은 '그젓긔'이며, 이 둘을 오가는 의미로 혼동되어 쓰이는 것은 '그적긔, 그격긔'이다. 이는 앞에 '그'가 한번 더 붙어서 3일 전을 의미하는 어형들인이 '긋그적씌, 긋그격긔'가 나타나고 '긋그저긔'는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점이지대가 있긴 하지만, 의미에 따라 어형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원이 다르기 때문일

4) 이는 『표준국어대사전』, 『어원사전』 등의 표제항 '그저께'에 대한 기술에 입각한 입장이다.

가능성이 높다. 근대국어의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6) ㄱ. 향덕은 신라 적 사름이니 공쥐셔 사더라 셩이 효슌ᄒᆞ더니 그저긔 히운이 흉황ᄒᆞ고 녀역ᄒᆞ야 부뫼 주리고 병드러 죽기예 다ᄃᆞ랃거ᄂᆞᆯ 향덕기 일야의 오ᄉᆞᆯ 그ᄅᆞ디 〈동국신속 1: 3b〉

ㄴ. 네 ᄎᆞᆫ 거세 病드렷다 내 어ᄌᆡ ᄎᆞᆫ 술 만히 먹엇다 그적의 能히 삭이지 못ᄒᆞ여 마리 앓프고 어즐ᄒᆞ여 飮食이 슬트라 〈몽어노걸대 7: 6b〉

ㄷ. 또 홍문으로 더브러 면질ᄒᆞ니 홍문이 ᄀᆞᆯ오ᄃᆡ 네 홍슐히의 아ᄃᆞᆯ이 아니냐 ᄀᆞᆺ그적긔 네 강룡휘로 더브러 원ᄭᆞᆯ 홍대셥의 집에 모히이여 셔과ᄅᆞᆯ 사먹을 제 졋히 네 동셩이 이셔 〈속명의록 1: 14a〉

ㄹ. 아므가히 이리 오라 네 代官의 가 내 말로 그적긔 여긔 ᄂᆞ려와 어제라도 오올거ᄉᆞᆯ 〈첩해신어 1: 1a〉

ㅁ. 昨 어적긔 再昨 그적긔 大前日 ᄀᆞᆺ그적긔 〈광재물보 3b〉

ㅂ. 今日 오ᄂᆞᆯ 昨日 어제 明日 ᄅᆡ일 前日 그젓긔 後日 모ᄅᆡ 〈몽어유해 上 03a〉

한편, 현대국어에서 '그제'는 단 한 가지 환경, '그제야, 혹은 그제서야'에서만 '그 때'의 의미로 사용되어 개념지시와 문맥지시의 기능을 하며, 나머지 환경에서는 항상 '이틀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 '이틀전'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는 어형은 '그저께'로 '그적+ᄡᆡ'에 소급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종합하면 중세국어에 '그적+의'형과 '그적+ᄡᆡ'형 중 전자는 '그 때에'라는 개념지시, 문맥지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자는 '이틀 전'이라는 의미의 개념지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 시기에도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었으나 현대국어에서 '그때'가 더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그적+의'형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이어받고 '그적+의'는 사라졌으며 '그적+ᄡᆡ'에 기원하는 '그저께', '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그 때에'라는 문맥지시 기능을 했던 '그저긔'류가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문맥 지시 기능을 하는 '그 ᄡᆡ', '그 때'가 활발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라지더라도 지시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저' 계열

근대국어에는 '뎌제', '뎌적' '뎌ᄡᆡ', '뎌때(뎌때)'등이 다양하게 출현하는 반면, 중세국어에서 '저'계열은 '뎌ᄡᆡ'만 나타난다. 다음은 중세국어의 '뎌ᄡᆡ'가 나타나는 예문들이다. 현대국어에서 '저'계열이 현장지시에만 나타나고 어휘화되어 개념 지시 의미를 획득한 '접때'만이 예외인 것과는 달리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뎌ᄡᆡ'의 예문은 오히려 현장지시가 문맥지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한문에서 문맥지시 기능을 하는 '彼時'를 그대로 번역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17) ㄱ. 그 남기 須彌ᄅᆞᆯ 흘러 갔도라 三千 年에ᅀᅡ ᄒᆞᆫ 번 서르 맛나ᄂᆞ니라 ᄒᆞ시니라 ᄯᅩ ᄒᆞᆫ 누ᄂᆞ로 ᄒᆞᆫ 굼긔 가미 至極 어려우ᄆᆞ로 佛法 맛나ᅀᆞ옴 어려우미 이 ᄀᆞᆮ호ᄆᆞᆯ 가ᄌᆞᆯ비시니 衆生이 기운 보매 제 ᄌᆞᆷ고 聖人이 世마다 나디 아니ᄒᆞ시ᄂᆞᆫ 젼ᄎᆡ라 <u>뎌ᄡᆡ</u> 妙莊嚴王 後宮 八萬四千 人이 다 어루 이 法華經을 受持ᄒᆞ리며 〈법화경 7: 139a〉

ㄴ. 果광然션 能능히 得득ᄒᆞ샨 바 업소ᄆᆞᆯ 뻐 對됭答답ᄒᆞᅀᆞ오니라 ᄆᆞᅀᆞ글 因힌ᄒᆞ야 得득ᄒᆞᆫ 바 업다 니ᄅᆞ뇨 자최로 議읭論론 컨댄 곧 釋셕迦강ㅣ <u>뎌ᄡᆡ</u> 然션燈등 니ᄅᆞ샨 밧 法법要룡 ᄃᆞ르샤ᄆᆞᆯ 因힌ᄒᆞ샤ᅀᅡ 熏훈習씹ᄒᆞ야 正졍覺각ᄋᆞᆯ 일우시니 〈금강경삼가해 2: 59a〉

ㄷ. ᄒᆞ마 如셩來링ㅅ號홍ᄅᆞᆯ 得득ᄒᆞ면 반ᄃᆞ기 菩뽕提 道똥ᄅᆞᆯ 得득ᄒᆞ리니 ᄆᆞᅀᆞ글 因힌ᄒᆞ야 我앙相샹 업소ᄆᆞᆯ 알리오 내 <u>뎌ᄡᆡ</u> ᄒᆞ다가 我앙相샹이 잇더든 당다이 瞋친恨흔ᄋᆞᆯ 내리러니라 ᄒᆞ시니 ᄒᆞ마 瞋친을 내디 아니ᄒᆞ실ᄉᆡ 〈금강경 삼가 3: 29a〉

반면, 근대국어에서는 '뎌ᄡᆡ'의 예문이 다음에 제시한 예 하나만 나타나고 역시 문맥 지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국어 시기부터는 '뎌ᄡᆡ'류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뎌제, 뎌적 뎌때(뎌때)'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다.

(18) 사ᄒᆞᆷ 사호던 ᄯᅡᄒᆞ로 다나오니 서늘ᄒᆞᆫ ᄃᆞᆶ비치 흰 쌔에 비취엿도다 潼關앳 百萬 軍士ㅣ <u>뎌ᄡᆡ</u> 敗散호ᄆᆞᆯ 엇뎨 ᄉᆡᆯ리ᄒᆞ뇨 半맛 秦民ᄋᆞ로 히여 주거## 〈杜重 1: 5a〉 귓거시 ᄃᆞ외에 ᄒᆞ도다 〈두시언해 중간본 1: 4b〉

다음은 근대국어의 '뎌때(뎌때, 뎌때)'가 출현하는 문장들로 역시 현장 지

시 기능의 예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현장 발화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헌자료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때는 근대국어의 '뎌때(뎌때, 뎌때)'도 문맥지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 ㄱ. ᄇᆞ람애 네 眼睛이 ᄲᅮ러디고 ᄉᆡᆼ각홈애 네 肝腸이 ᄭᅳᆫ처디리니 뎌 때에ᄂᆞᆫ 내게 간셥디 아닌 일이라 너희들이 그저 가기를 ᄀᆞ음알고 날을 ᄀᆞ음아디 말라 〈오륜전비 2: 29a〉

ㄴ. ᄌᆞ식이 업서도 방해롭디 아니ᄒᆞ거니와 不幸ᄒᆞ야 丈夫ㅣ 죽음애 自己ㅣ 守寡ᄒᆞ고 兒子ㅣ 업스면 뎌 때에 사ᄅᆞᆷ의 긔운을 바다 이것도 네 ᄑᆞᆯ믈 許티 아니ᄒᆞ고 뎌것도 네 ᄊᆞᆷ을 許티 아니ᄒᆞ며 〈오륜전비 6: 5a〉

ㄷ. 션인의 덕이 셰샹에 잇실 때에 혹 악인 ᄀᆞᆺ고 악인의 힝실도 셰샹에 잇실 때에 혹 션인 ᄀᆞᆺᄒᆞ나 뎌 때에ᄂᆞᆫ 츔션홈은 더옥 그 덕을 현양ᄒᆞ고 거ᄌᆞᆺ션은 더옥 그 악을 더ᄒᆞ야 모든 이의 눈에 〈성경직해 16b〉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대국어의 '뎌때(뎌때, 뎌때)'가 문맥지시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근대국어 '뎌격, 뎌제'의 경우에는 과거의 시간 중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개념 지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각각 '뎌격', '뎌제'의 예이다.

(20) ㄱ. 로파가 듯다가 우으며 그 소져ᄂᆞᆫ 셔방님을 아ᄂᆞᆫ것 갓더이다. 뎌격에 셔방님 오실ᄯᅢ에 소져가 사리문에셔 ᄂᆡ야다보다가 반기ᄂᆞᆫ빗이 얼골에 나타 〈설중매 7〉

ㄷ. 그제야 눈을들어방에잇ᄂᆞᆫ 문방긔구를 모죠리 삷혀보니 다시 의심ᄒᆞᆯ것 업시 뎌격에 ᄌᆞ긔 잡혀와 곤난격던 곳이라 〈옥호기연 43〉

(21) ㄱ. ᄒᆞᆫ 후 말고뎌 ᄒᆞ니 참혹ᄒᆞ도다 삼슈듕의 니ᄅᆞᆫ 바 칼은 엇디 가히 일로 써 역이라 니ᄅᆞ리오 뎌제 튜안을 피열ᄒᆞ다가 칼 준 됴건을 보고 진실로 이믜 의심ᄒᆞ엿더니##〈闡義 2: 59a〉 이제 〈천의소감 2: 58b〉

ㄴ. 나라 위엄이 빗나니 군흉이 다 베히기의 나아간디라 경하ᄒᆞ고 두리ᄂᆞᆫ ᄆᆞᅀᆞᆷ이 뉸ᄇᆞᆯ의 잇ᄂᆞᆫ디라 뎌제 혼됴의 흉ᄒᆞᆫ 무리 만혼디라 삼강이 다 믄허디니 〈조야기문〉

종합하면 중세국어에서는 '뎌ᄯᅴ', 근대국어에서는 '뎌제', '뎌격' '뎌ᄯᅴ',

'뎌때(뎌때)'가 출현하는데, 중세국어에서 '뎌ᄡᆡ'는 한문의 문맥지시 기능을 하는 '彼時'에 대한 직역 표현의 영향을 받아 문맥지시 기능을 보인다. 근대국어에서도 '뎌ᄡᆡ, 뎌때(뎌때)'의 경우에는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문맥 지시 기능을 담당하나 '뎌제, 뎌적'의 경우에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나타내는 개념지시 기능을 한다. 현대국어에서는 한문 문장 직역의 영향을 받은 문맥지시 기능의 '저때'는 사라지고 현장지시의 '저때'만이 나타나며, 어휘화한 '접때'는 개념지시 기능을 한다. 근대국어에서 개념지시 기능을 담당했던 '뎌제, 뎌적'의 현대형인 '저제'는 더 이상 잘 사용되지 않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근대국어시기의 의미인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킨다는 정의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

Ⅳ. 결론

본 논의에서는 현대국어의 '이제, 그제, 저제, 이때, 그때, 저때'가 나타내는 시간지시의 체계를 밝히고 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더 심도 있게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간 지시의 경우에도 현장지시, 개념지시, 문맥지시 기능이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언어 사용자는 이러한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어휘화시키는 등의 변화를 꾀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지시어가 결합한 시간 부사(명사)류가 나타내는 현장지시, 개념지시, 문맥지시의 기능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으나 부끄럽게도 시간과 노력의 부족으로 이를 정리하지는 못하고 현대국어의 시간 지시 체계와 '이제, 그제, 저제, 이때, 그때, 저때'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단계에 머물렀다. 다만 현대국어의 '이제, 그제, 이때, 그때, 접때'에 소급되는 중세, 근대국어의 어형들 역시 현대국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장지시, 개념지시, 문맥지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거나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온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남겨진 내용은 추후에 더 진전된 논의를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기주연(1994), 『근대국어조어론연구 1 — 파생법편』, 태학사.

김일웅(1982),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178, 한글학회, pp. 53-88.

남광우(1997), 『고어사전』, 교학사.

신지연(1998), 대용어, 『문법연구와 자료 — 이익섭선생 회갑기념 논총』 pp. 665-687.

이현희(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장경희(1989), 지시사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6-2.

장석진(1984), 지시와 조응, 『한글』 186.

정동경(2005), 시간명사에 대한 통시적 연구 — 고유어를 중심으로 —. 국어연구 18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 1』, 태학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